수십년 반복된 종교편향…"더는 못참겠다"

[진단] 불교계 이례적 반발…성난 불심 이유는

문체부 '캐럴 캠페인' 계기로
불교계 전방위 강경대응나서
단일 사안 넘어 상황직시해야
국립 합창단 · 가톨릭 성지 등
누적돼 온 여러문제들 연장선
정부차원 근본적인 고민 필요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향한 범불교 차원의 규탄 여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캠페인 중단을 위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캠페인 예산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불교계 각 기관 · 단체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규탄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여론이 결집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교계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동안 불교계는 공공기관의 종교편향을 비롯한 각종 불교폄훼, 훼불사건 등과 관련해, 일시적인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종교편향과 불교폄훼로 인해 누적된 성난 불심이 '문체부의 캐럴 캠페인'을 계기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단순히 '캠페인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넘어서, 공공기관과 우리사회에 만연한 종교편향과 불교소외, 불교폄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우리사회가 이러한 규탄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올해만 해도 불교계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 관람료 폄훼 발언과 국공립합창단의 종교편향성, 불교폐사지에 가톨릭성지 덮어씌우기 의혹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논란이 됐지만, 단 한건도 속시원한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징수사찰을 '봉이김선달'로 매도해 논란을 빚었고 불교계의 반발에 뒤늦게 사과방문을 했지만, 이로 인해 폄훼된 불교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에 따른 상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립합창단의 종교편향 논란과 천진암과 주어사 등 사찰터에서 진행되는 가톨릭 성지화로 인한 논란 역시, 이미 수년전부터 지적됐던 사안이 다시 불거졌음에도 이렇다 할 변화를 이끌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조계종은 11월 26일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종단 역량을 결집해 관련 사안에 대해 총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누적된 불교계 민심이 '캐럴 캠페인'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실제 11월 30일 진행된 종단협 회장단 긴급회의에서는 "수없이 반복되는 종교편향 문제를 멈추기 위해서는, 제2의 범불교도대회까지 염두에 두고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단협 사무처장 진경 스님은 "긴급회의에서 그동안 불교계가 너무 점잖게 대응해 왔기 때문에 종교편향 사안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범종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했고 이를 통해 불교 차원에서 큰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종단협이 12월 1일 항의서한을 채택해 청와대에 전달한 데 이어, 문체부를 상대로 법원에 '캠페인 예산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까지 불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종단협은 특히 항의서한에서 "국공립합창단의 종교편향 공연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왜곡 및 사찰비하 발언 등으로 불교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 왔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발생한 '캐럴 캠페인' 추진사태는 일련의 종교편향 사건들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조직적인 종교편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불교계의 종교편향성 캠페인 중단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규탄 분위기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안은 논란 초기 "종교편향적 행정이긴 하지만 캐럴도 문화의 범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문체부가 종교편향 논란에도 "올해만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이를 강행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종교편향 및 불교폄훼에 대응하기 위한 이 같은 불교계의 변화는 이미 지난해부터 서서히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남양주 수진사 기독교인 방화사건이 대표적이다. 종교평화위원회는 당시 이례적으로 기독교계를 직접 겨냥하며 "불교계는 그동안 사회 안정과 종교 평화를 위해 한없는 연민과 자비심으로 인내해 왔지만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고통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앞으로 훼불 사건을 용인하지 않음은 물론 근본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종단협 역시 올초 이사회에서 종교편향 및 불교폄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결의했다.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1단계 단발성 · 경미한 사안 2단계 훼불사건 및 공공시설 편향 및 조직적 사안, 3단계 중대한 편향 및 훼불사건 등으로 단계별로 분류하고 사무처 대응, 회장단 종단 연대, 이사회 소집 등으로 단계별 논의 구조를 확정했다.

'자비와 포용'의 종교로 그동안 숱한 차별을 감내해 왔던 불교계가 반복적인 종교편향과 불교폄훼의 고리를 끊기 위해 대응의 강도를 높인 상황에서, 이번 문체부의 '캐럴 캠페인' 논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대변화 속 불교대안 제시 '안심불교포럼' 출범

11월 29일 안심정사 주도 범불교지성인모임

태고종 지도자급도 대거 참여
이사장 이기수 前고려대 총장
양당 대선후보 캠프서도 축사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불교중흥과 사회적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불교지성인모임'이 탄생했다. 안심정사를 주축으로 첫 출범한 '안심불교포럼'은 각 분야 전문가와 정관계 인사, 불교계 리더급이 합류한 범불교네트워크로 주목된다.

안심정사(회주 법안)와 안심불교학술원은 11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안심불교포럼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안심불교포럼은 법안 스님을 법주로 모신 가운데, 이사장 이기수 前고려대총장과 사무총장 홍승기 안심위클리 사장, 안심정사 주지 혜신 법사를 중심으로 첫 행보를 시작한다.

정치 · 사회 등 각 분야 리더들이 참여하는 포럼이 태고종을 주축으로 창립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안심불교포럼이 어떤 역할을 할지 여부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특히 창립기념식에는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잇따라 축사를 전해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불교지성인모임 '안심불교포럼'이 11월 29일 출범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포럼에는 태고종 원로의장 도광 스님과 총무원장 호명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 호법원장 혜일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을 이끄는 주요소임자 스님들이 참여했으며, 특별초청법사로 조계종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도 참여했다.

또 정관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명 대선후보 비서실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 등이, 학계는 정병조 前 금강대 총장, 선경 고려대 의대 교수, 김흥주 원광대 교무처장, 송현옥 세종대 교수 등이, 언론계에서는 남영진 KBS이사장, 김주일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념식에서 법안 스님은 "중도와 원융회통으로 시대적인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사부대중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송지희 기자


108배 릴레이 기부 캠페인 출범법회에서 고불문을 낭독하는 사부대중의 모습.

동국대 108배 기부릴레이 캠페인 'START'

11월 30일 정각원서 출범법회 봉행
윤성이 총장 등 108배로 성공 기원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108배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본격 시작했다.

동국대 대외협력처(처장 김애주)는 11월 30일 교내 법당인 정각원에서 '108배 릴레이 기부 캠페인 출범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윤성이 동국대 총장,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정각원장 진명 스님 등 사부대중 40여 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고불문을 통해 "오늘 시작하는 '108배 기부 릴레이'는 기도와 기부를 통해 보시행을 실천하고, 권선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는 동국의 새 인드라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들은 캠페인의 성공을 기원하며 부처님 전에 합동 108배를 올렸으며, 108배 직후에는 윤 총장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20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 후에는 권선 메시지를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박대신 동국대 총동문회장 등 6명에게 전달하며 장학금 기부를 독려했다. 두 번째 주자부터는 각 3명씩 지목하는 방식으로 릴레이를 이어 나간다.

신성민 기자

"특정종교 아닌 공공성지 돼야"

11월 29일 비구니회 포럼
발제자들 한목소리로 제언

"여러 종교의 역사적 경험이 서려있는 장소는 특정 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주어사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공존형 종교성지 조성을 통해 불교나 천주교의 일방적 기억만을 강변하는 장소가 아니라 모두 함께 종교 · 문화적 공감대를 이루는 공공성지로 거듭나야 한다."

불교사찰터에 가톨릭성지를 조성해 '역사 덮어씌우기' 논란의 중심에 선 주어사 · 천진암과 관련, "특정종교성지가 아닌 공공성지로서 공존과 상생의 장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11월 29일 개최한 '천진암과 주어사의 올바른 역사계승을 위한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특정종교의 전유물이 아니기에 공공성지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박종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는 '조선시대 유교와 불교의 문화적 공존과 상생의 양상_불교사찰의 문화적 공공성을 중심으로' 발제를 통해 중첩된 종교 공공성지화를 제언했다. 박 교수는 "특정종교의 종교성지가 아닌 포용과 공유의 공존형 종교성지가 바람직하다"며 "공공성지는 종교적 보편성은 물론, 문화적 공공성을 상기시키는 장소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비구니회가 11월 29일 개최한 포럼.

한승훈 원광대 HK연구교수도 "종교사적으로 봤을 때 이 장소는 결코 특정한 제도종교가 독점할 수 없는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며 "한국종교의 공공성지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주어사와 천진암에서 일어난 일은 불교적인 장소에 유교인의 정체성을 가진 행위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이 장소는 한국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종교전통 사이의 교류가 새로운 종교사적 도약을 이뤄낸 종교화합의 현장으로서 기억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불사용품 전문기업
금륜사
30년 축척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애프터 서비스로
맞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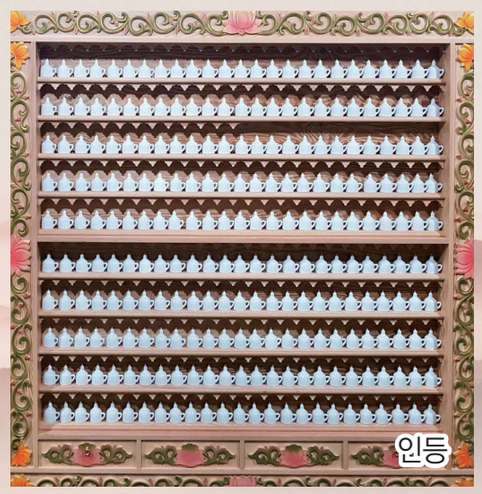

수미단 · 닫집



영단


윤장대 · 인등


인등


인등


인등 시공사례